

지역 소식통

정읍시, 태풍 힌남노 대응 농업재해 담당자 역량 교육

정읍시 농업기술센터가 초강력 태풍 힌남노에 따른 농업 피해 최소화...

9월 6일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며...

이에 시는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 조사와 빠른 복구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IMS) 운영, 재해조사 관련 준수사항, 복구계획 전반에 관한 교육으로 진행됐다.

또한 시는 농수산유통과를 총괄로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피해상황 즉각 확인과 빠른 피해 복구 등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춰 재해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부안군농기센터, 위도면 고창 농기계 현지수리

부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농기계 임대탑에서는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3명의 농기계 수리요원이 참여해 위도면 일원에서 고장난 농기계수리 봉사에 참여하는 적극 행정을 펼쳤다.

위도면은 옥지와 떨어져 있어 농기계 고장시 즉시 수리가 어렵고 비닷물에 의해 농기계 부식 등 고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져서 애로사항이 많은 지역이다.

이번 농기계 봉사활동은 고장으로 인해 장기간 방치된 농기계나 조금만 수리하면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 등을 수리하지 못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위도면 농업인들의 안타까움을 해결하고자 위도면(면장 김현규)의 요청에 의해 농기계의 수요를 사전에 파악 후 이번에 실시하게 되었다.

이 기간동안 위도면 대리, 치도, 진리 등 13농가의 현장을 찾아가 경운기, 예초기, 관리기 등 20여대의 중소형 농기계의 수리, 점검 및 부품교체 작업을 실시했다.

'농업소득 안정화 대책' 마련

심덕섭 고창군수, 농업관련 부서장·팀장 긴급회의 주제

쌀 값 하락 등 농업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민선 8기 고창군이 지속가능한 농업 소득 안정화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인다.

지난 2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8월 30일 오후 심덕섭 고창군수 주재로 농업관련 부서장·팀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농업 현안 대책마련 긴급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농업개발, 쌀값 하락, 농자재 가격 상승 등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지역 농업 피해 최소화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먼저, 고창군은 신속한 시장격리로

쌀값 안정에 노력하기로 했다. 이어 논타작물 장려금 지원 확대를 검토해 쌀 값 하락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 군비지원 사업 6개 분야(중소형 농기계, 원예특작생산단지 지원, 소규모 모비닐하우스 지원, 하우스작물재배용 수경법지원, 고추건조기 지원, 농산물 중수형 저온저장고 지원)의 보조율도 기존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한다.

농기계 면세유나 비료 인상분을 지원해 농작물 생산비 상승에 따른 농가 부담을 최소화한다.

강화한다. 추석맞이 지역농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행사 등도 추진된다.

지속가능한 농업소득 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비율도 15%~20%로 높인다. 전폭적인 지원으로 내년 농업분야 지원예산은 올해보다 49억3500만원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피팜 흘러 지은 농산물에 감사하며 서로의 인부를 물어야 할 한가위를 앞두고 지역 농민들의 근심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지역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짓고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팔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 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군-라오스 정부단, 농촌 계절근로자 파견 추진

라오스 노동사회복지국장 등 일행 자국민 파견 요청 위해 부안군 방문 관련 논의

부안군은 지난 2일 부안군청 3층 회의실에서 권익현 부안군수와 농촌 계절근로자 도입 논의를 위해 방문한 라오스 이누손 캄심사비트 노동사회복지국장 일행을 맞아 농촌 계절근로자와 관련 논의를 벌였다.

이 자리에는 부안군수 등 부안군 관계자와 라오스 이누손 캄심사비트 노동사회복지국장 일행 등 15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논의된 주된 사항은 부안군과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가 농업분야 인적교류를 통한 두 나라간 농업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부안군에서 농촌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시 라오스 자국민들이 파견 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부안군을 방문한 라오스 이누손 캄심사비트 노동사회복지국장은 "라오



부안군은 지난 2일 부안군청 3층 회의실에서 권익현 부안군수와 농촌 계절근로자 도입 논의를 위해 방문한 라오스 이누손 캄심사비트 노동사회복지국장 일행을 맞아 농촌 계절근로자와 관련 논의를 벌였다.

스는 주된 산업이 농업이며 많은 라오스 국민들이 한국의 선진농업과 기술을 배우고자 한다"며 "상호 신뢰를 바

탕으로 한 농업분야 교류를 시작으로 다양한 교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추석 연휴 감염병 취약시설 코로나19 특별방역 대책 시행

고창군은 추석 연휴 기간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은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의 집단감염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시설 관리를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선제적 방역 대응 조치로 추석 연휴 이후 9월 30일까지 5주간을 특별 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감염 취약 시설 26개소를 집중 관리한다.

감염 취약시설 내에서는 개인 방역 수칙의 생활화로 모든 구역을 1일 3회 10분 이상 환기시키고 주 1회 방역소

독 조치를 실시한다. 종사자·입소자 전원 실내 마스크를 착용하고 지정좌석에서 간식과 식사를 제공한다.

종사자는 매주 1회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하고 시설 이용자는 발열·호흡기 증상 등 1일 2회 모니터링하고 유증상자와 밀접 접촉 직원은 업무 배제하고 자가검진을 실시한다. 시설 내 확진자 발생 시 보건소 핫라인을 통해 즉시 보고하고 전 종사자·이용자 검사 결과 최종 '음성'이 나올 때까지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또 추석 연휴 기간에는 고창군 보건소 비상방역대책으로 51명/4개 별진료소 호흡기 클리닉, 감염병 대응반, 역학조사반)을 정상 운영하며 비상진료기관 15곳을 지정해 코로나19 유증상자 검사부터 재택 치료자 관리까지 주민 안전에 빈틈없이 대응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건강하고 안전한 추석을 보내기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 달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읍시가 내장산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된 내장호를 시의 핵심 관광자원으로 개발·육성할 계획이다.

생태관광자원 콘텐츠 개발

정읍시, 내장호 주변 종합발전계획 수립 1차 중간보고회 가져

정읍시가 내장산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된 내장호를 시의 핵심 관광자원으로 개발·육성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일 '내장호 주변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1차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내장호 발전 계획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시의 관계부서와 내장산국립공원공단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참석했다.

시에 따르면 내장호의 국립공원해제 결정에 따라 난개발을 방지하고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발전 모델을 만들기 위한 용역을 지난 5월부터 시작해 11월까지 실시한다.

이번 용역을 통해 국가생태관광지역인 솔티숲·월영습지와 연계해 생태관광자원을 활용한 특색있는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내장호 주변의 개발사업 여건과 기존에 진행 중인 개발사업을 분석해 실시중인 용역과의

연계 방안을 제시하고 관계 기관들의 의견교환을 위해 마련됐다.

국가생태관광지역인 솔티숲과 월영습지를 포함해 내장사 내장사 문화관광, 내장산 상가를 연계해 관광객이 1박 이상 체류하며 관광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관광 콘텐츠 개발에 대한 보고와 의논이 진행됐다.

또한 시는 9월 중 공청회를 열어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질 계획이다. 시민의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보완해 11월 최종적으로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내장호 국립공원해제에 발맞춰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내용과 시민의 의견을 적극 검토·반영 하겠다"며 "내장호 일원의 획기적이고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추석 전 농어민 공익수당 농가당 60만원 지급

정읍시가 2일 농가 경영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추석 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이하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 대상자들에게 6월부터 정향누리상품권으로 농가당 6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농어민 공익수당은 총 66억 9천 만원으로 11,150농가에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앞서 농어민 공익수당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각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통해 홍보하고 신청·접수를 받았다.

올해부터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대

상자가 기존 경종 농가에서 양봉농가와 어가를 포함해 확대됐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지역화폐 '정향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기존에 정향누리상품권 카드를 발급받은 대상자는 자동 지급되며 아직 발급받지 않은 대상자는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추석 전에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농어민은 8월 31일까지 지역 내 농협을 방문해 발급받거나 '지역상품권 chak' 앱 통해 발급받으면 된다.

시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농어민 수당을 지급 요건인 농어민의 이행사항을 확인한다.

/정읍=김대환기자

Advertisement for '착한신고' (Good Reporting) campaign. It features a woman covering her face in distress, with hands pointing towards her. The text promotes reporting crimes or safety concerns to the police (112) and lists benefits for reporters, such as protection and support. It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reporting: phone 112 and a website for reporting to the police.